

노관규 순천시장,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연대 제안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지 복원 과정 등 순천의 습지정책 발표

대한민국 넘어 기후위기 대응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역할 강조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프랑스 아미앵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습지도시 국제연대를 제안했다.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와 프랑스 아미앵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 세계 10개국 24개 습지도시 시장단 200여 명이 참가했다.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개최되었으며 2020년 차기 개최지로 프랑스 아미앵시가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회의가 연기되어 4년 만에 개최됐다.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노관규 시장은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를 주도하며, 순천의 도심과 연결한 습지 보전 정책과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



지 복원 과정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순천의 습지정책을 발표했다.

노관규 시장은 시장단 회의에서 "습지 보전을 위해 일관된 정책집행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라며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두려워할 때 함께 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외국의 유사사례를 들어 힘을 북돋우어 주는 역할을 람사르 습지도시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일관된 정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시장단 회의에서 24개 습지도시는 습지

보전 정책 및 도시 인프라로서 습지를 활용하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증대 시켰다. 또한 우수한 습지도시의 습지보전 정책을 장려하고, 습지보전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한편,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튜니지가 공동 발의하여 결의문으로 채택되어 람사르협약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협약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2018년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순천을 포함한 7개국 18개 도시가 습지도시로 첫 인증을 받았고 2022년 제14차 총회에서 13개국 25개 도시가 추가 인증 받았다.

또한, 2019년 발족한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는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도시 브랜드를 수여받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습지도시가 함께 습지를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네트워크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정원박람회 보고 광양서 '풀잠' 하세요

남도숙박할인 빅 이벤트

당자 이메일(cksgh0924@korea.kt)로 제출해야 한다.

할인금액은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 등으로 1회 총 10박에 한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지정 숙박업소 목록, 참여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광양에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광양불고기 맛집이 즐비한 '광양불고기특화거리'가 있다. 광양불고기특화거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장과 10km 내에 위치해 박람회장을 관람하거나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민족감을 충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보성,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3600세대에 분말 소화기 등 3종 보급 시작

보성군은 관내 화재 취약 계층 3600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3종 보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보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연계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스프레이 소화기 등 3종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보급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예방 교육을 병행해 주민들의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장도, 해도 등 유인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골목길 소화기'(가칭)를 설치해 대형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며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100% 달성을 해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 탄소중립 실천 SNS 인증 이벤트

12~23일 참여… 대자보 운동·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순천시는 제28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전 시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후변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제28회 환경의 날 주제인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2023 세계 환경의 날 주제 : 플라스틱 오염 퇴치, Beat Plastic Pollution)에 맞게 전 지구적 학부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 활용 실천'을 유도하고자 기획되었다.

행사내용으로는 ▲대자보 운동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어싱길 걷기를 진행하고 ▲노플라스틱데이 운동으로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퍼빈(무인회수기) 또는 재활용센터 활용 평생 모으기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방법은 12일부터 23일까지 순천시 공식 인스타그램(@suncheonsi)에 해시태그 '#순천시환경의날'이 포함된 댓글을 남기고, 에코바이크, 워크온, 수퍼빈 등 운동 앱(App) 캡처 화면과 활동 사진을 전자우편(sjlim07@korea.kt)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주첨 및 순위별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광양시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행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하수의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제품제조와 판매 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사용 가능하지만, ▲인증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으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곡성,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소 선정

월경·고치·운교마을… 사업비 60억원 확보

곡성군이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신청 대상지 3개소 모두 선정돼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

죽곡면 고치마을, 겸면 운교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마을들은 지난 3월에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협장 컨설팅 및 농식품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3개 마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주택정비,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후담장정비, 마을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황상연 기자

구례군의회-베트남 다낭시 선짜군, 우호교류 논의

씨름대회 등 관람…화엄사·자연드림파크 등도 방문

구례군의회는 최근 베트남 다낭시 선짜군 대표단을 초청해 주요 관광지 관람과 관광개발 분야 협력 및 우호교류를 다졌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선짜군은 베트남의 관광 일번지인 다낭시의 6개 군 중 하나로 전 세계 10대 해변에 선정된 미케해변, 67m 높이의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한 린응사((Chua Linh ̣ ng, 瞳寺) 등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알려진 곳이다.

선짜군 인민위원회 황선짜(Hoang Son Tra) 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선짜군 대표단은 8일 구례를 방문해 구례 대학 장사 씨름대회 관람, 의회 방문 차담, 한국암회박물관 관람 및 암화 제품 체험, 오산 사성암 관람, 저녁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인 9일은 지리산대학원사 관람, 구례 자연드림파크 공방을 들러 보고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시문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지자체 간의 교류는 미약했다"며, "베트남의 관광도시인 선짜군과 관광특구인 구례군이 관광개발 분야의 협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황선짜 선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광상품 개발과 투자 유치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향후 우호교류 협약 체결 의향을 표시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